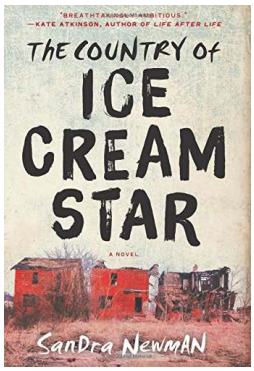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COUNTRY OF ICE CREAM STAR
가제 : 아이스크림 스타의 나라
저자 : Sandra Newman
출판사: Ecco
발행일: 2015년 2월
분량 : 592 페이지
장르 : 소설



"너무나도 훌륭한 소설. 이렇게 참신하고 야심 가득찬 소설을 언제 읽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다." - 케이트 앳킨슨

2014년 북셀러 선정 올해의 책, 독특하고 매혹적인 디스토피아 소설

80년 후, 전염병으로 20세 이상의 인구가 모두 사망한 미래. 전염병 WAKS로 인구가 거의 전멸해버리고, 전염병으로 스무 살 이상의 사람들은 죽어나간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포지'라 부르며, 아이들만 존재하는 세상을 꾸려가고 있다. 주인공 아이스크림 스타는 15세 소녀로 미국 서부 마사 숲에 살고 있다. 18세인 오빠 드라이버는 마을의 대표로 지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과 아이스크림은 오빠인 드라이버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수명이 20년인 세상에서 아이들은 15살이 되면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하고, 어른 못지 않게 담배나 술을 즐기며 살아간다. 이들은 '셍글'이라는 부랑자 계급으로 주변을 뒤져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며 살아간다.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종족이라 부르는 '루'를 포획한다. 이들은 피부가 하얗고 그들과는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며, 종종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죽이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면 죽이거나 포획하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들이 다른 인종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아이스크림은 이 '루'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가둬두는데, 정찰병 꼬마가 루와 이야기하다가 그의 이름이 파샤이며 30살이라고 했다는 것을 듣게 된다. 또한 그녀는 오빠인 드라이버가 전염병의 영향으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이스크림은 '루'가 정말 30살이라면 치료약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를 통해 치료약을 찾기로 결심한다.

<파리대왕>이나 <헝거게임>,<워킹데드>를 연상시키는 배신과 신뢰, 욕망과 전쟁의 세계

하지만 드라이버가 약해진 사이, 그 다음 연장자이자 아이스크림의 연적인 크로우가 임시 대표를 맡게 된다. 모두가 이름 없이 계급과 직업으로만 칭해지는 도시, 모두가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는 도시인 로웰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아이스크림은, 시장이자 셍글 출신인 엘 메이어에게 자신을 돕지 않으면 크로우가 마을을 장악할 것이라 말한다. 또 그녀는 마을에 찾아와 우두머리인 '뉴킹'의 부인이자 여왕을 찾곤 했던 '넷 마사' 군대로 가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도시와 지도자간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전쟁에 동참하기로 한다. 로웰 사람들과 넷 마사 군인들과 함께 전진하는 그녀는 많은 전투를 치르고, 뉴욕시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을 성녀 메리의 화신으로 만들려 하는 히스패닉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전쟁을 치르고 치료약으로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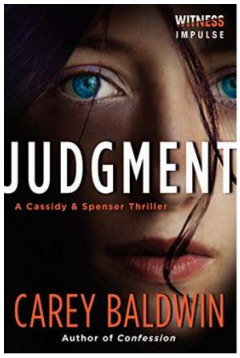
디스토피아는 많은 소설에서 시도되어 온 장르이지만 이 소설은 새롭고 오래 된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었다. 그녀가 창조해낸 세상은 독창적이며 굉장히 현실적이고, 배신과 신뢰, 욕망과 전쟁의 세계로 독자들을 끌어들인다. 이 소설은 정치적인 비유, 로맨스와 스릴러의 요소까지 섞어낸 이 작품은 독자들의 긴장감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으며 <헝거게임>이나 <파리대왕> 혹은 <워킹데드>와 같이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이 주목 받는 점은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언어이다. 실제 어린 아이만 남은 미래의 미국 영어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상상하며 작가는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켰고, 이 일그러진 문법과 시적인 아름다움은 독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한 번에 파악하기 힘든 줄거리와 구성, 개념들을 추측해나가야 하는 소설이지만 평단의 한결 같은 극찬을 받으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소설은 구상 당시 YA 소설로 기획되었지만, 디스토피아를 그린 성인 소설로 탄생했다. 세상에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을 그린 이 소설은, 인종과 성, 계급, 종료와 정치, 전쟁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요즈음의 소설처럼 쉬운 언어로 쓰여진 소설은 아니지만, 언어를 곱씹고 음미할 수 있는 독자라면 이 독특한 언어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자 소개>

작가인 산드라 뉴먼은 가디언의 데뷔소설 수상작 후보에 오르기도 한 <The Only Good Thing Anyone Has Ever Done>의 작가이며, <Cake> <the memoir Changeling>, <How Not to Write a Novel>, <The Western Lit Survival Kit> 등을 집필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제목 : JUDGMENT
가제 : 판결
저자 : Carey Baldwin
출판사: Witness Impulse
발행일: 2014년 11월 1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서스펜스 매거진' 선정 2014년 최고의 소설 'Confession'의 작가가 완성한 심리스릴러물

가학적인 살인자의 먹잇감이 된 여대생,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범죄 심리학자인 케이틀린 캐시디와 특수요원 아티쿠스 스펜서가 법정에 섰다. 각각 변호인과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사건에서,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라이벌로 여러 번 부딪힌 사이였다. 처음에는 이번 사건도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번엔 무언가 심상치 않다. 괴한의 느닷없는 잔혹한 공격에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남자가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케이틀린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스스로를 '미로 속 남자'로 칭하는 미친 살인자는 겨우 살아남은 케이틀린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목숨을 지키려면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다. 늘 대립만 하던 케이틀린과 스펜서는 이번만큼은 힘을 합쳐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까지 33,500부 이상 판매되며 인기 몰이를 한 범죄 소설 ≪Confession≫의 작가 케리 볼드윈이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전작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또 한 편의 범죄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다. 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수상 경력까지 있는 서스펜스 소설 작가로 살고 있는 작가는 의학, 심리학 박사 학위를 모두 보유한 탄탄한 지식을 토대로 이번 심리 스릴러물을 완성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심리학자와 특수요원, 더 없이 잔혹한 살인마를 쫓기위해 힘을 합치다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케이틀린.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고 확신한다.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 된 케이틀린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밤낮없이 쉬지 않고 일한다. 괴한의 습격은 과거 아버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요청으로 법정을 찾았던 날 벌어졌다.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그에게 거절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도중에, 어딘가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이다. 케이틀린은 큰 부상을 입고 말았지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스펜서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두 사람은 이 섬뜩한 장난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서 벌어진 여대생의 잔혹한 살인 사건이 케이틀린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명을 쓴 범죄와 모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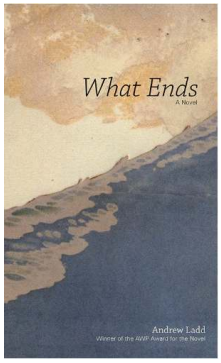
결국 이 살인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동참하게 된 케이틀린. 스펜서를 비롯한 FBI와 형사들은 그녀가 일하는 방식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제대로 협조해주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사건 해결에 혈안이 된 동료 수사관들이 섣불리 누군가를 용의자로 점찍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케이틀린은 도무지 그런 수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두 사람, 그러나 사건은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향해 여대생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연쇄적으로, 그것도 지금껏 본 적도 없는 잔인한 수법으로 희생되고, 두 사람은 이 정신 나간 범인을 찾아낸다는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려 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 범죄에 희생자가 될 뻔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처, 겁에 질린 사람들이 만든 민간 방어 단체, 끔직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괴물들의 면면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 겉으로는 기민하고 실력 좋은 케이틀린과 스펜서지만 각자 깊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심적 괴로움과 싸우며 사는데, 과연 두 사람은 이 무서우리만치 교활한 범인이 쳐 놓은 그물을 헤치고 과연 그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케리 볼드윈(Carey Baldwin)은 의학, 심리학 박사를 모두 보유한 작가로, 저서로는 ≪Confession≫, ≪Fist Do No Evil≫ 등이 있다.

제목 : WHAT ENDS
가제 : 무엇을 위해
저자 : Andrew Ladd
출판사: New Issues Poetry & Prose
발행일: 2014년 1월 20일
분량 : 265 페이지
장르 : 소설



한 때 번성했지만 점점 쇠퇴해가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 평범한 가족에게 찾아온 변화의 물살

영국의 지도를 보면, 스코틀랜드 서쪽에 수백 개나 되는 작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지도 위에 페인트 붓을 한 번 털기라도 한 듯, 점점이 흩어진 이 섬들 중에는 '에일리언 피오르'섬도 있다. 고요한 해변에 둘러싸인 에일리언 피오르는 한 때 인구가 수백 명에 육박할 정도로 북적댔고 긴 세월 대대로 살아온 집들도 많지만, 찾아오는 발길이 줄고 다들 더 큰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제 지역사회는 점점 쇠락해져만 간다. 먼 옛날부터 이곳 토박이로,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변화와 직면해야 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섬 주민의 숫자가 스물여덟까지 줄어든 이곳에서 꿋꿋이 삶을 이어가는 맥클라우드 가족에게 새 식구가 생겼다. 장남인 베리와 둘째 딸 피오라에 이어 막내로 태어난 트레버. 가족들 모두 트레버를 반기지만, 사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트레버의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모린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은 여름 한 철에만 찾아오는 수준이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바로 근처에 있는 술집 겸 식당 한 곳과 더불어 망해가는 섬의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트레버가 태어나자 곧바로 형과 누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늘 변덕이 심하고 창의력 넘치는 누나 플로라는 화가를 꿈꾸며 에일리언 피오르의 거대한 저택에 사는 부유한 예술가를 염탐하면서 지냈는데, 부모님은 장남인 베리의 성화에 못이겨 결국 플로라를 본토에 있는 예술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베리 역시 섬을 떠나야만 했다. 지금까지는 섬에 한 곳 밖에 없는 학교에 유일한 학생으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그곳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배울 수가 없었고, 하는 수 없이 본토의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제 집에는 부모님과 트레버만 남게 됐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지만 부모님은 남은 여생을 그냥 이 섬에서 보내기로 마음 먹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새로운 삶의 앞에서 가족 각자가 내리는 선택과 결과, 그 가치와 의미

작가는 맥클라우드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조명하며, 그들 각자가 변화를 맞는 방식과 고민, 선택을 그려낸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뭍으로 가게 된 베리와 피오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섬의 작은 사회 바깥에 나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놓인 베리는 자신이 평생 믿었던 가치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버려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결국 늘 지켜온 문화와 전통을 모두 거부하고 새 삶을 택한다. 일단 결정을 내린 베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단호한 태도로 동생들에게마저 등을 돌린다. 그와 달리 피오라는 화가가 되고 싶은 꿈과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섬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생활이 과연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이 맞는지 고민을 거듭한다. 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피오라는 섬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주민이 떠나간 뒤에도 부모님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가업을 잇기로 한다.

소설은 트레버가 갓 태어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십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2005년까지 맥클라우드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인물의 인생을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주면서, 각자가 계획한 삶의 방향과 방식이 시간과 환경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린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알맞은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 더 많은 것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각자의 갈등,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결정들, 결코 바라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 남에게 말하거나 드러내지 못한 개개인의 감정과 분노, 가족의 의무를 폭넓은 시선에서 그린 직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 및 글쓰기 프로그램 협회(The Association of Writhers & Writing Programs)'로부터 소설상을 수상했고, 2015년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수여하는 '영라이온스 소설상(Young Lions Fiction Award)' 최종 후보에 올랐다.

<저자 소개>

앤드류 라드(Andrew Ladd)는 <Graze>, <CICADA> 등 다양한 간행물에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Memoir Journal>, <The Rumpus> 등을 통해 비소설 분야 글을 여러 편 게재했다. 위 작품이 그의 소설 데뷔작이다.

제목 : THE PROBLEM WITH GOATS AND SHEEP
가제 :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법
저자 : Joanna Cannon
출판사: Borough Press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353 페이지
장르 : 소설

실종된 여인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선 두 소녀와 그들이 찾게 되는 진실들

1976년 6월 21일 찌는 듯한 날씨의 월요일. 8번 집에서 크리시 부인이라 불리는 마가렛 크리시가 실종된다. 마을 사람들은 마가렛이 지쳐 떠났을 것이라고 수군대지만, 주인공인 그레이스는 평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 실종사건에 의문을 갖게 되고, 친구인 틸리와 함께 이 사건이 혹시 살인사건이 아닐까 하는 공상을 하게 된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교회 목사님이 '신은 길 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설교를 듣고 신을 찾게 되면 마가렛을 찾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 두 소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동네 사람들을 지켜보기 시작한다. 포브스 부인의 집을 방문한 그들은 마가렛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포브스 부인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들은 집을 나선 순간, 포브스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마가렛과 찍은 사진이 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분명, 사람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동네 술집에서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마가렛의 실종된 것에 안도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루된 화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분명 마가렛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녀가 무언가를 털어놓았을 지도 모른다며 안도한다.

마가렛의 남편인 크리시 아저씨는, 부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외로워하고 그녀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의 머리를 맴도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바로 "부인이 혹시 월터 비숍씨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라는 경찰의 질문이었다. 월터 비숍은 마을에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거의 추방당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실종된 마가렛을 찾는 것에 동참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월터가 마가렛의 실종에 연관되었을지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다.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미스터리 소설

두 아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름의 증거를 찾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에 근거해서 두 아이는 9년 전 그 거리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실종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가 실종되던 날 진실을 감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렛이 실종되던 날 했던 이야기와 같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오랫동안 감춰둔 진실들과 마주한 이웃들, 그리고 마가렛을 찾으려는 두

아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한다. 이웃끼리 정다운 마을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에 뒤이어 파헤쳐지는 비밀을 그린 이 소설은, 사랑스러운 그레이스와 틸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각에서 긴장감있게 서술된다. 완벽한 마을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두 소녀를 차분히 풀어내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독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남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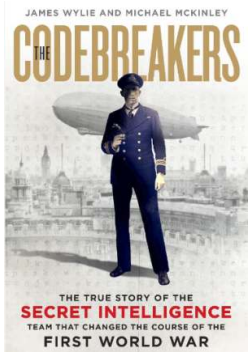
하나님이 길 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성경 구절에서 생겨난 이 독특한 데뷔 소설은 마리아 셈플, 에마 힐리, 사라 윈만에 비견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성장소설이자 탐정소설이기도 한 이 소설은 따스하고 매력적인 인물들과 잘 짜여진 구성으로 York Festival of Writing에서 상을 수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금액에 계약되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출간될 예정이며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도 계약 진행 중이다.

<저자 소개>

저자인 조아나 캐넌(Joanna Cannon)은 심리상담가이자 소설가이다. 이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으로, 출판사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다. 현재 영국, 그녀는 더비샤이어에 거주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CODEBREAKERS
가제 : 암호해독가들
저자 : James Wyllie & Michael McKinley
출판사: Ebury Press
발행일: 2015년 6월 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역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 영국의 암호해독가들, 그들의 첫 등장과 위대한 업적

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유럽. 프랑스 서부에서는 연합군 부대원들이 진흙탕에 매복하며 공중을 떠 다니는 독일의 제플린 비행선을 격추시키려 애를 썼고 대서양에서는 미국에서 보낸 물자 수송선들은 독일군의 유 보트를 어떻게든 피해 영국 땅에 닿으려 고투했다. 바로 그 시각, 음울하고 고요한 영국 정부 건물 한 켠에서도 비밀스러운 전쟁이 한창이었다. 적군을 누를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괴짜들의 집단, 암호해독가들의 전쟁이었다. 무선 기술이 등장하자 각국 정부와 군대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너도나도 이 신기술을 채택했지만, 이 기술은 원치 않는 상대가 정보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군이 감추려는 정보와 암호를 알아내야 했고, 영국 정보부 '40호실'에 모인 전문가들이 바로 그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블레츨리 파크에서 운영되던 정부의 암호해독 팀이 '에니그마'로 알려진 독일 해군의 통신 내용을 해독한 이야기는 최근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도 만들어지면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그 시초는 1차 대전 영국 정보부 40호실에서 해낸 놀라운 성과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은 체력보다 지력으로 정보 전쟁을 처음 시작한 이들의 비밀스러운 업적과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엄청난 성과를 상세히 전한다.

100여년 전부터 모든 강대국들이 무선 통신 기술을 땅, 바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교신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자 적군보다 앞서 나가려면 상대가 주고 받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것이 암호해독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다. 교전국들마다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팀이나 조직을 구성했고, 이 절박한 필요와 명확한 목표 덕에 다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영국군만큼 큰 결실을 얻은 곳은 없었다.

1차 대전에 조직되어 2차 대전까지 이어진 영국 해군 소속 각양각색 암호해독가들의 이야기

당시 영국에서 암호 해독 업무는 해군이 운영하던 '40호실'의 전문가 팀과 육군이 운영하던 분석팀 두 곳이 맡았다.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얼굴에 틱 증상이 나타나 '깜박이'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특유의 카리스마와 번뜩이는 기지를 따라올 자가 없던 해군제독 레지날드 홀, 그의 지휘 아래 모인 40호실의 암호해독 팀은 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온갖 분야의 학자들을 비롯해 작가, 배우, 회계사, 기자, 가로세로 낱말 퍼즐 전문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젊은 고전학자, 중세 독일어 전문가,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젊은 여성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똑똑한 인물들이 다 모인 엘리트 팀이었다. 이 영리한 집단은 발칸반도 전장에서 오가는 독일군의 교신을 비롯해 북아프리카, 중동 등 적군이 정한 전략과 전술을 캐내고 전력, 약점, 위치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했으며, 바다에서는 독일군 함대와 악명 높은 유보트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늘에서는 제플린 비행선이 영국 어느 마을과 도시를 공격할 예정인지도 알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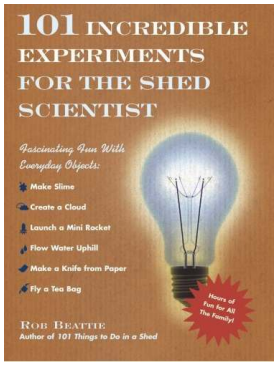
40호실의 암호해독 팀은 전쟁에서 독일을 고립 상태로 만들고 연합군의 위력을 증대시키는 일에도 큰 몫을 했다. 특히 영국에 물자를 공급하던 미국에 교활하고 치밀한 방해 공격과 보복 행위를 일삼던 독일군의 공격 계획을 알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이들을 통해 독일이 멕시코 지도자들을 부추겨 미국을 공격하게끔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전까지 전쟁에 적극 개입하지 않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마침내 연합군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홀이 이끌던 암호해독 팀이 없었다면, 미국의 지위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차 대전의 결과 또한 현재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을지 모른다. 이 영민한 팀을 필두로 영국에서는 정보부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었고, '안보본부'가 설립되어 2차 대전 당시 활약한 암호해독 팀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암호 해독에 뛰어든 다채로운 인물들과 정보 활동에 투입된 스파이들, 전장에서 정보를 직접 활용해 결단을 내려야 했던 장군들의 면면과 그들이 벌인 활약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용기와 자기 희생정신을 보여준다. 정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이자, 정보 요원의 첫 등장과 초기 활동, 그들을 저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현대 통신기술로 이어진 과정까지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와일리(James Wyllie)는 작가이자 극작가, 방송인으로 BBC, Film4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큰 인기를 얻은 TV 드라마 시리즈의 각본을 썼다. 저서로는 ≪Goering and Goering≫, ≪Hitler's Henchman≫ 등이 있다.

마이클 맥킨리(Michael McKinley)는 작가, 영화감독, 기자, 극작가로 <뉴욕 옵저버>,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선 타임즈>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CNN, 디스커버리 채널, C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101 INCREDIBLE EXPERIMENTS FOR THE SHED SCIENTIST
가제 : 창고 과학자를 위한 101가지 놀라운 과학실험
저자 : Rob Beattie
출판사: Ebury Press
발행일: 2006년 11월 2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과학



여가 시간을 창고에서 고독하게 실험에 몰두하는 사람들, 아마추어 과학자를 위한 101가지 실험

집에 창고나 헛간이 있다면, 혼자 쉬면서 조용히 사색하기에 그만큼 좋은 공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간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물리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자연의 거대한 진실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명 '창고 과학자'라고 직접 명명한 아마추어 과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찬사를 보내면서, 외롭게 진실을 연구하는 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소개한다. 헛간이나 창고에서 홀로 실험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놀림감이 되기 일쑤다. 사람들은 곧 저기서 이상한 폭발음이 나거나 연기가 피어 오를 거라고 마음대로 추측하며 수군댄다. 저자는 아마추어 과학자들도 번듯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전문 과학자들 못지 않게 진지한 목적과 열의로 연구에 몰두한다고 엄중히 옹호하면서, 이들이 비록 '염화수소'니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같은 시약이나 원심분리기, 측광기 대신 식초와 베이킹 소다, 9볼트 배터리, 사탕 막대기를 가지고 실험을 할지언정 지식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전문가에 못지 않다고 설명한다. 창고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처럼 연구비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 열악한 조건을 극복해야 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 과정이나 방법을 오히려 더욱 기발하게 생각해낼 줄 안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을 위한 책이며, 이 고매한 취미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는 달걀을 삶지 않고 껍질 벗기는 법, 음식에서 DNA를 추출하는 법, 물을 와인으로 변신시키는 방법, 집 마당에 크리스탈이 자라게 하는 법, 눈에 안 보이는 잉크 만드는 법, 모스 부호 전송기 만드는 법, 다 큰 어른도 번쩍 들어다 옮길 수 있는 장치 만드는 법을 비롯해 전극 사이에 작은 오이를 끼워 컴컴한 곳에서 빛이 나게 하는 법까지, 다양한 과학적 취향을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101 가지 기발한 과학 실험이 소개된다. 거창하고 값비싼 장비나 시설이 없어도 집에서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더불어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친 방법들이므로, 창고나 차고 등에서 혼자 연구에 몰두하는 새내기 과학자들도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친 일상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창의력을 일깨워줄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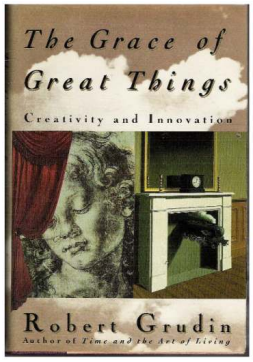
지루한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 재료들로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 책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감의 풍부한 컬러 그림으로 실험 방법과 도구 등을 상세히 보여주고, 동일한 과학적 원리가 실제 전문 실험실에서 적용될 경우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도구나 장비가 이용되는지도 알려준다. 또 조금 복잡한 실험은 준비물, 실험 방법, 관찰할 수 있는 반응(혹은 결과)를 각각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실험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따로 일러준다. 저자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차고에서 온갖 기발한 실험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왔다. 춤추는 스파게티부터 특별한 살충제까지 아버지에게서 마술의 비밀과 실험의 기본적인 원리, 필수 지식을 익힐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 실험들은 학창 시절 과학시간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고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겁낼 것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실험들이라고 설명한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 뜻밖의 결과를 기대하는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소개>

랍 비티(Rob Beattie)는 기자로 <선데이 타임스>, <메일 온 선데이>, <옵저버> 등 다양한 매체에 기술과 음악에 관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제목 : THE GRACE OF GREAT THINGS
가제 : 위대한 것의 품격
저자 : Robert Grubin
출판사: Ticknor & Fields
발행일: 1990년 5월 23일
분량 : 257 페이지
장르 : 인문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뒤집으려면? 혁신과 창의성의 가치, 영향력을 짚어주는 책

어느 정도 큰 발전을 이룩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쯤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 책은 그 안이한 흐름에 반기를 들고, '행복하려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의적 사고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일까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더불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런 혁신적이고 천재적인 사고가 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짓누르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창의성과 혁신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고, 인간이 지닌 핵심적인 특징이다. 다른 종과 달리 인간이 문명세계를 이룩하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과학적, 기술적인 혁신 덕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 전해진 예술적 창의성은 물론이고 자유 민주주의, 18세기에 이루어진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낳은 결과에만 중점을 둘 뿐, 혁신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맨 처음 어떻게 탄생하고 점점 성장할 수 있었는지, 즉 어떤 창의적인 번뜩임으로 시작해 최종 결과물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력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뿌리부터 면밀히 살펴본다.

서구 사회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1990년대 초 이후부터 지구촌 다른 지역들과 기술 발전과 경제력 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러 분석가들은 서구 사회가 정체기에 든 이유로 낡은 도구와 유연성 없는 조직체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수준 낮은 교육, 취약해진 윤리 의식 등을 꼽았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안보' 혹은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며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즉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장기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참신한 생각과 새로운 형식을 탄생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이 자유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생산성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지금 보유한 자유를 서로 통제하려고 다툼을 벌인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결과물로 완성되는 전 과정, 그 시작과 과정, 의미

저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서적으로 힘든 도전으로 느껴질 때 창의력이 한층 증대되며, 혁신적인 사고는 개인적으로 혼자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창의적인 행동과 사고를 위해서는 열린 생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 형식과 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도덕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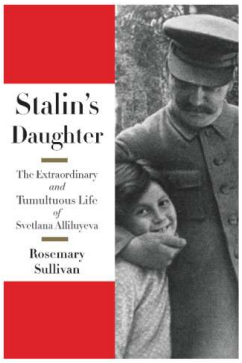
이 책은 이러한 생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의 탄생과 특성, 그 엄청난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누구나 창의성이라고 하면 순간 머릿속을 번쩍하고 때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만 생각하지만, 그 순간적인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최종 결과물을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한다. 2부에서는 '창의성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위대한 것의 품격'에 등장하는 품격이라는 표현은 곧 정신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창의적인 성과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소개한다. 저자는 이 요소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참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3부 '혁신의 정치학'에서는 창의적인 성과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그것을 이룩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역사적 시대에 따라 '획기적인 발명품'을 정의하는 기준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현재 엄청난 발명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천재적 인물들과 그들이 남긴 성과들, 그리고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영리하게 수용하여 당대 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았던 발명가들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면서, 창의성과 혁신이 그 자체만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글쓰기,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이 낳은 놀라운 업적과 그 아이디어가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고 창의력을 가로막는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조직 전체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로버트 그루딘(Robert Grudin)은 하버드 대학교와 트리니티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재 오리건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Mighty Opposites≫, ≪Time and the Art of Living≫이 있다.

제목 : STALIN'S DAUGHTER
가제 : 스탈린의 딸
저자 : Rosemary Sulliva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5년 6월 2일
분량 : 75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세계최고 독재자의 딸로 태어난 여성, 풍요로운 어린시절부터 빈곤에 시달린 삶까지 풍랑의 인생

옛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 스탈린의 딸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격동의 삶을 살아야 했던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 앞서 제 2차대전 당시 여성 예술가들의 힘겨웠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던 저자가 이번에는 스베틀라나의 일생과 운명을 750 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으로 기록했다. 그 속에는 역사상 최고의 괴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스탈린의 딸로 태어나 어떻게든 그 그림자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려 고투를 벌인 한 여성의 삶이 담겨 있다. 스베틀라나는 현격히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았다. 태어나고 자란 소련에서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며 미국으로 홀연히 떠나버린 이후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인생처럼 너무나 달랐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된 1926년에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크렘린 궁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철옹성 같은 공산당의 위세와 특권은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숙청과 당시 나라 전체에 퍼진 굶주림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선 독재자 스탈린에게 스베틀라나는 그저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하지만 일곱 살이 된 해의 어느 날, 엄마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물론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로 알려지지 않았고, 어린 스베틀라나도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교에 가도 수많은 경호원과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통에 어느 누구와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 그리고 열다섯 살이 된 스베틀라나는 영어로 된 잡지에서 엄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접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 곁에서 사라진 건 엄마 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빠 둘, 이모, 삼촌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연인까지 아버지 손에 처형되거나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베틀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그 동안 얼마나 잔인 무도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된 그녀는 소비에트 공화국 전체에 엄청난 환멸과 적대감을 느끼고 1967년,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간다. 모스크바에 두 자녀를 남겨둔 채, 그녀는 그렇게 미국으로 망명해버린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매 순간 고투를 벌여야 했던 그녀의 일대기

낯선 세계에서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죽은 척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스베틀라나는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미국 대사를 지낸 조지 케넌 등 예전에 알고 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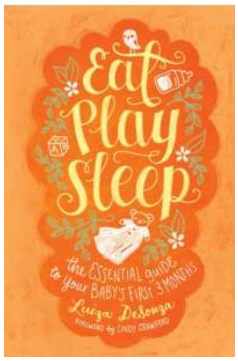
인물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상황은 비극적으로 흘러갈 뿐이었다. 가족들, 친구들이 소련에서 처형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미국 정부는 소련의 보복을 두려워한 그녀의 손을 선뜻 잡아주지 않고 주춤거렸다. 어느 쪽에도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었던 스베틀라나의 인생은 잦은 이사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결혼 생활, 극심한 빈곤으로 점점 피폐해져갔다.

저자는 철저한 자료조사로 얻은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토대로 소련과 미국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그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스베틀라나를 향한 커다란 연민을 담아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교류를 원했지만 끝내 서구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을 안타까운 어조로 이야기한다.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정치적인 수감자처럼 살았던 한 여성, 이 책은 스베틀라나의 인생을 소련에서의 어린 시절, 소비에트 공화국의 진실을 깨달은 시기, 미국으로의 망명, 미국에서의 삶으로 나누어 그녀가 걸어간 길을 하나하나 따라간다.

<저자 소개>

로스마리 설리번(Rosemary Sullivan)은 베스트셀러로 대열에 오른 ≪ Labyrinth of Desire: Women, Passion, and Romantic Obsession≫과 ≪ The Red Shoes: Margaret Atwood Starting Out ≫를 쓴 작가로 시인 그웬돌린 멕이웬(Gwendolyn MacEwen)의 전기 ≪Shadow Maker≫로 비소설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현재 토론토 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인 으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EAT PLAY SLEEP
가제 : 먹고 놀고 자고
저자 : Luiza DeSouza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5년 2월 2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녀교육



헐리우드 스타들과 일해온 50년 경력의 아기 키우기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50여년 동안 유명인사들의 자녀를 비롯해 수많은 아기와 엄마들을 도우며 일해온 보육 전문가가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부모들을 위한 실용적이고 믿음직한 지침서를 완성했다. 특히 이 책은 아기가 태어난 후 첫 석 달 동안 벌어지는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준다. 출산이 임박했지만 갖가지 육아 정보에 혼란스러운 사람, 엄마, 언니, 친구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해준 충고지만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지 고민인 사람들에게 저자는 객관적인 '전문가'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가 단언하는 최고의 육아 비법은? 바로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는 모성 본능을 믿고, 주어진 상황과 아기의 성격에 잘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저자는 아기를 키우는 일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마침내 세상에 나와 엄마와 얼굴을 맞댄 아기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육아에 임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다. 또 엄마들마다 양육 방식은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아기에 대한 '인내심, 열린 마음, 조심스러움' 이 세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집에 아기가 새로 생기는 일은 한 가족의 삶에 큰 변화이며, 기쁘지만 당황스러운 일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출산을 앞둔 엄마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유명 모델 신디 크로포드의 추천사로 시작되는 이 책은 모든 것이 낯선 새내기 부모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대신, 출산 이후 3개월 동안 알아두어야 할 사실과 주의점에 중점을 두고 각 시기별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1단계에서는 출산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찬찬히 정리했다. 아직 출산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엄마들은 물론이고 준비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단계부터는 아기가 세상에서 처음 보낸 시간을 기준으로 첫 10일, 첫 한 달, 2개월 째, 3개월 이후로 각각 나뉜다.

생후 첫 3개월, 엄마와 아기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소중한 정보들

2단계 '첫 10일 – 집에 아기가 있어요!'에서는 처음 마주한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법, 함께 지내는 법, 모유나 우유를 먹이는 방법,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설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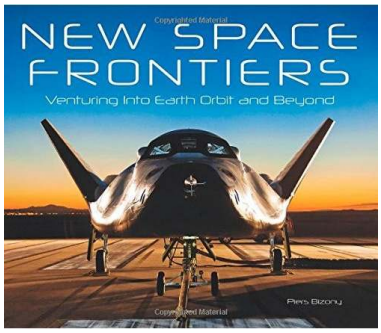
다. 3단계 '첫 한 달 - 세상에, 아기가 살고 있어요!'는 아기와 지내는 시간들이 규칙적인 일상생활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노력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신생아의 생활 주기이기도 한 먹기, 놀기, 잠자기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서 젖이나 우유 잘 먹이는 법, 목욕과 마사지를 놀이의 하나로 만드는 방법, 아기가 보채지 않고 달콤한 꿈나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을 소개하고 아기 엄마의 건강상태에 관한 유익한 조언까지 제공한다. 4단계 '2개월째 - 우리 잘 하고 있는거죠?'에서는 신생아의 먹고, 놀고, 자는 일상 생활에 엄마와 아기 모두가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과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요령을 소개하고, 출생 후 이 시기까지 잘 해내고 있는지 중간점검 차원에서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5단계 '3개월 째, 그리고 그 이후 - 안정감과 앞으로의 생활'에서는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저자가 전하는 조언, 점점 자라나는 아기의 변화 과정 등 값진 정보와 아기를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따끔한 충고가 가득하다.

신생아를 목욕시킬 때는 수건에 감싼 상태로 욕조에 넣어서 아기가 방향 감각을 잃고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세심한 충고 등, 저자는 이 책에서 주변에 육아 전문가나 경험 많은 가족, 친척이 없는 엄마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를 알려준다. 학문이나 의학적 목적으로 육아를 다룬 책들에서 대부분 놓치기 쉬운 현실적인 노하우가 가득하며, 단호하지만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저자 특유의 설명 방식은 내용의 신뢰감을 더해준다. 엄마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녀 만의 방식과 상식적인 충고가 잘 어우러진 이 책은 전통적인 육아 방식대로 아기를 키우고 싶은 부부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루이자 드소자(Luiza DeSouza)는 1963년부터 고향인 브라질에서 아기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여러 헐리우드 스타들의 자녀 보육을 도왔다.

제목 : NEW SPACE FRONTIER
가제 : 우주의 새로운 경계
저자 : Piers Bizony
출판사: Zenith Press
발행일: 2014년 10월 15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과학



지구 궤도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고자 쉬지 않고 진행된 인간의 노력, 그 과거와 현재, 미래

2011년 아틀란티스호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사 프로그램 없이 종료된 우주왕복선 사업. 이것이 '우주 시대', 혹은 지구의 경계 바깥으로 인간이 비행하는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는 징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약 반 세기 전,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지금처럼 많은 유인비행선이 만들어진 적은 없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는 수많은 우주인들이 파견되어 열심히 임무를 다하고 있고, 지난 20년간 사람이 끊긴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수십 년간 그렇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좌우하는 단독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상업적인 목적의 우주 탐사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50년 동안 우리는 우주 궤도에서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로 나간 그 시절 우주비행사들처럼, 인류가 또 다시 우주 깊숙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날이 올까? NASA는 소행성 탐사를 목표로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화성 탐사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도 태양계 너머로 인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우주, 과학 분야 저서를 다수 발표한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우주 곳곳의 모습과 우주선, 관련 장비의 사진과 더불어 현재까지 인간이 이룩한 우주 탐사의 역사와 과정, 지금까지 완성된 각종 우주 탐험 장비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흥미진진한 우주 여행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1장 '지구 행성을 벗어나서'에서는 NASA가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먼 우주 공간에 인간이 직접 가서 탐험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인 비행선과 그 방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몰두 중인 민간 업체들의 노력들을 소개한다. 더불어 미국 외에 세계 각국의 우주 비행 역사도 되짚어본다. 2장 '우주 비행의 새로운 정의'에서는 지구 대기권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높이 이상으로 하늘 높이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 기술들과 새로운 모험의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2012년 지상에서 39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늘에서 우주복을 입고 자유 낙하에 성공한 오스트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의 짜릿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4분간 자유 낙하를 마치고 낙하산으로 나머지 9분을 비행한 그의 모험은 비록 '우주 비행'으로 분류되는 기준으로는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토록 엄청난 높이를 직접 몸으로 부딪힌 경험의 가치는 우주 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주 다이빙'에 대해 살펴본다.

달 착륙, 우주왕복선, 국제 우주정거장, 화성 탐사 계획 등 풍성한 자료로 들여다보는 우주 공간

3장 '하늘의 섬들'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관한 정보와 위대한 성과를 소개한다. 지난 20년간 우주에 사람이 머무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우주정거장 완성을 위한 노력, 정거장의 내부 구조, 지금까지 얻은 성과, 그리고 '외계' 인구를 더 늘리고 거주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지구를 바라보며 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생생한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4장 '목적지는 달'에서는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 이제 3일만 비행하면 닿을 수 있는 달 탐사를 주제로 인류가 다시 한 번 이곳을 방문하는 그 날이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지 전망한다. 현재 기준에서 가장 탐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목적지인 달. 저자는 과거 아폴로 호의 업적과 우주선 설계 과정, 달 표면 탐사에 필요한 장비들, 인간이 다시 발을 내딛는 날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폭넓게 설명한다.

5장 '행성을 오가는 모험'에서는 화성 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본다.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태양계에 속한 거의 모든 행성들과 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현 시점에서 화성 탐사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 과정과 NASA의 탐사선 개발 계획, 화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탐사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마지막 6장 '무수한 별을 넘어서'에서는 공상과학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머나먼 우주의 어느 별을 여행하는 일이 이제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구에서 별을 더욱 가깝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망원경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방대한 자료와 저자의 맛깔 나는 설명을 통해 멀게만 느껴지는 우주를 더 가깝게 느끼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 우주를 신나게 여행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피어스 비조니(Piers Bizony)는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간행물을 통해 과학, 우주, 천체에 관한 글을 발표해 왔다. 저서로는 ≪2001: Filming the Future≫, 우주비행 관련 도서에 부여하는 NASA의 '유진 M. 엠 상(Eugene M. Emme Award) 최종 후보에 오른 ≪The Rivers of Mars≫, 유리 가가린의 일대기를 정리한 ≪Starman≫ 등 다수가 있으며 양자물리학의 발견에 관한 최근작인 ≪Atom≫은 BBC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